

## # 현대시 개론

### I. 독해편

#### 0. 대전제 : 시를 이미지화하며 읽는다.

시라는 것은 **정서와 이미지를 압축한** 액기스 같은 장르이다. 그렇기에 정서와 이미지 모두 간과할 수 없다. 그렇다면 어떻게 시를 이미지화하며 읽을 수 있을까?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보자. 우리는 텍스트를 읽으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등장인물과 공간 등을 머리 안에서 상상하며 읽게 된다. 시도 이와 마찬가지로. 물론 시는 **추상적인 언어가 산재**하기에 이미지화가 마냥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, 이해 가능한 부분을 **파편적으로 기억**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가져야 할 태도이다.

#### 1. 보기를 읽는다.

문학이 애매해서 어렵다는 질문을 주는 학생들이 있다. 이들 중 <보기>의 정보를 간과한 경우가 태반이다. **문학이란 다양한 해석과 감상이 허용되는** 장르이다. 그렇기에 평가원은 우리에게 감상과 **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도구인 <보기>**를 준다. <보기>는 3D 안경과도 같은 존재이다. 3D 영화관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. 눈 건강을 부지할지는 몰라도 영화는 흐릿하게 보일 것이다. 본인의 주관이 아니라 <보기>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지문을 보는 것이 문학을 기계적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이다.

<보기>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**작품의** 주요 소재, 주제, 화자의 상황 또는 태도 등의 **정보**를 얻는다.
- **정서를 긍정적**인 것과 **부정적**인 것으로 나누어 평가한다.

#### 2. 작가를 확인한다.

아는 작가가 등장한다면 반가운 경우가 더러 있다. 단순한 마음의 안정 때문만은 아니다. 우리가 아는 작가가 나온다면,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김소월, 김영랑, 이육사, 윤동주 등 잘 아는 시인을 현장에서 마주한다면 작품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.

가령, 윤동주의 작품이 추상적인 언어로 <보기>도 없이 등장한다면 우리가 작품의 성격을 아는 방법은 '작가가 '윤동주'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'뿐이다. 윤동주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나침반 삼아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다.

#### 3. 제목을 확인한다.

제목의 사전적 정의는 '작품이나 강연, 보고 따위에서, 그것을 **대표**하거나 **내용**을 보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'이다. 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.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목은 후술할 시적 대상과 지대한 연관성이 있다.

#### 4. 화자와 시적 대상을 파악한다.

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는 감독과 주연들과도 같다. 시인이 창조한 시적 세계에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셈이다. 수험생들은 **화자는 시 속의 '나'**라는 것 정도쯤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, 시적 대상에 관한 이해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. 그렇다면 **시적 대상**이란 것은 무엇일까? 수능 문학의 범주 내 가장 간단한 정의는 시 안에서 화자가 가장 **중심적으로 조망**하고 있거나 화자와 직접적으로 **긴밀한 관계**를 맺고 있는 대상이다. 이런 설명 또한 수험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. 그렇기에 **제목과 소재를 통해 시적 대상을 파악**하는 방법을 추천한다.

#### 5. 대전제를 지키며 정서를 확인한다.

앞서 서술했듯이 시는 이미지와 정서가 압축된 형태이다. 그렇다면 정서를 어떻게 판단할까? 정형화되지 않은 현대시의 정서를 **정확히 무엇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**하다. 허나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. 수능 국어는 정확한 정서를 서술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. 우리는 **대상의 긍정과 부정만을 판단**하고 선지의 정보 내 긍정과 부정을 **비교하고 내용이 일치하는지**를 보면 그만이다. 거기에 <보기>를 통한 시에 대한 이해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다.

## II. 풀이편

### 1. 문제 유형

#### - 표현상의 특징

첫 번째 문제이기에 과소평가하기 일쑤지만, 막상 푸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도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유형이다. 그 이유는 판단이 어려운 주관적인 선지에 대해 1번부터 순서대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. 각 선지를 **가볍게 살펴**보며 확인하기 **쉬운 것들을 위주로 제거**해 나가는 것이 좋다.

#### - 시어 및 구절에 대한 이해

보통 시상의 전개를 이미지에 기반하여 묻거나 시어에 담긴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다. **이미지에 기반하여** 묻는다면 지문과 선지의 **비교**를 통해, **시어의 의미**를 묻는다면 시어가 담고 있는 **긍정 혹은 부정적 요소**로 파악하면 되겠다.

#### - 보기 문제

푸는 방식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.

1. 파악한 **정서를 기반**으로 빠르게 선지를 판단한다.
2. 위의 단계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, **지문의 내용과 비교**하여 답을 찾는다.

두 번째 단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정리해둔 다음의 네 가지 대표적인 오답 유형들을 살펴보자.

## 2. 오답 유형

### - 과해석

과해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.

“김철수는 사과를 좋아한다.”라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. 해당 내용을 과해석하여 선지로 구성한다면,

“김철수는 사과를 반려의 대상으로 좋아한다.”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런 유형은 정답률 30%대 킬러 문제에서 정답보다도 많이 선택된 선지였다. **과해석의 여지**가 보이는 선지는 정서 파악의 단계에서 **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**.

### - 모순 : 선지

선지 안에서의 모순은 <보기>문제분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오답 유형이다.

선지에 “a는 b를 통해 ~a(not a)를 나타낸 것이겠군”이라는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, 우리는 **지문 및 보기와 무관하게** 해당 선지를 오답이라고 고를 수 있을 것이다.

이는 **시간 단축**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.

### - 모순 : 보기

<보기>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매우 큰 근거 중 하나이다. 그렇기에 보기에서 제시하는 **내용과 반대**된다거나, 보기에 **없는 내용**은 무조건 오답이라 볼 수 있다.

### - 없음

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선지이다. 없음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선지를 뜻하는데, **없는 것을 찾는 과정**이 필요하기에 매우 까다롭다. 이것 또한 과해석과 비슷한 논리로 **혼자 엮나간 선지를 염두**에 두자.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면, 파악한 내용과 비교하여 우선 소거해둔 후 정오를 판단할 수도 있다.